

재활용은 일상...해남 자원순환센터, ESG 실천 ‘랜드마크’

〈환경·사회·지배구조〉

재활용품 가져오면 포인트 적립해 필요 물품 수령하거나 대여
개관 1년...학생 교육장 등 탄소중립 실천 핵심거점 자리매김

개관 1년을 맞은 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가 탄소 중립 실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자원순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체험, 나눔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다. 해남군이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분야 역점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5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센터가 건립됐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비롯해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는 리필샵, 토종씨앗을 나누고 기증하는 토종씨앗 공유센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공유물품 대여센터, 중고 물품을 공유하는 재활용품 나눔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자원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증강현실 입체 체험교육장을 조성했다. 주민들이 적립한 자원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갖추고 있다.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과 순환뿐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생활 실천 환경교육 등을 운영하며 자원순환 도시, 해남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표 사업인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땅끝희망이’는 가입자 1838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자리 잡았다. 교환센터에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센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교환도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지금까지 총 506건의 재활용품이 센터에 되돌아와 자원순환이 군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땅끝희망이 플리마켓’은 업사이클링 제품 교환, 중고물품 나눔장터, 재활용품 교환행사 등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관심과 실천을 이끌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육성된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마을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은 지금까지 580여회에 걸쳐 운영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행사나 모임에서 다화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물품 대여 사업도 활발하다.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68건, 1만 7452개의 공유물품이 사용돼 1회용품 줄이기에 기여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개관 1년을 맞은 자원순환복합센터가 해남의 탄소중립 실천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1번지 해남의 환경가치를 상징하는 핵심시설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자원순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완도군, 다중 이용 시설 413곳 가스 안전 강화

이달말까지 숙박·목욕탕 등
결합 발전시 행정처분키로

완도군이 ‘가스 안전 종합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 “완도군 가스 안전 종합관리계획”은 다중 이용 시설 점검과 가스 안전장치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가스 관련 위해 요소 개선과 안전 관리에 대한 군민 인식 확대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완도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5월 말까지 지역 숙박업소 125개소, 민박 276개소, 목욕장 12개소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합동 점검반은 가스 설비 적정 설치, 가스 누출, 배기 통 이탈, 일산화탄소 누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결합 발전 시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은 또 LPG 배관망 사업과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LPG 배관망은 완도를 19개 마을 4100여 세대와 6개 섬마을 400세대에 설치되어 연료비 절감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료를 사용할



완도군 관계자가 다중 이용 시설 가스 배관을 점검하고 있다.

고 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2028년까지 고금, 군외, 약산, 신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무호스 사용 가구의 금속 배관 교체, 가스 자동 차단 장치(타이머 콕)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도 현재까지 1만 세대에 설치됐으며, 모든 주택, 가스 사용시설 등에 설치되도록 매년 지원량을 확대한다.

기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스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주민들의 안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가스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책을 통해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완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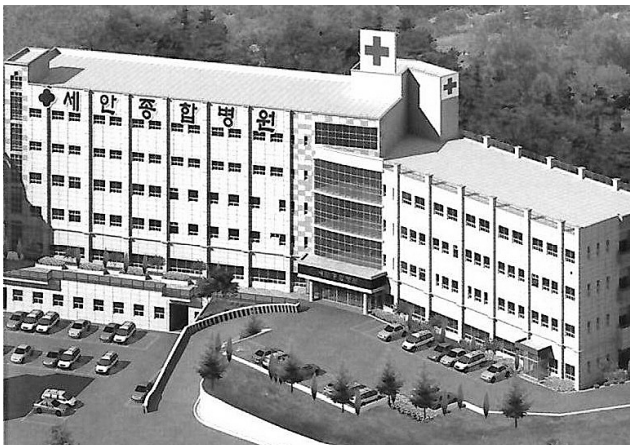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역민 ‘건강 지킴이’ 목포 세안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펼쳐온 목포 세안종합병원이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세안병원은 ‘찾아가는 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일상 속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 도약하는 등 병원 체질 개선에 나섰다 밝혔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병을 키우기 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현대 의료의 기본 방향이다”라며 “섬 지역 주민들과 같이 병원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 이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4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시작해야 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간염과 빈혈, 결혼 전 건강진단 등 중요한 예방적 검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등 특화된 검진 항목으로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가

능하다. 세안병원이 운영 중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가 검진체제와 민간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맞춤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이 되는 종합건강검진은 신체계측과 혈액검사, 흉부 X-ray,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성인병이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성인병 검진, 특정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인생 전환기인 만 40세와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직장인 대상의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도 함께



목포 세안병원 전경.

제공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단순한 병 발견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영광군, 디지털 소상공인 1만명 양성

무인판매기 등 최대 100만원 지원...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영광군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 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무인판매

기, 사이니지,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는 키오스크 설치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므로 키오스크 구매에 대해

서는 조건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지역내 소상공인이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6월 13일까지 사업자등록원, 매출액 증빙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하거나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보증 금융 지원

진도군, 기업 30억·소상공인 5억...자금 소진 때까지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 ▲지방 이전기업 ▲유망창업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기업은 최대 3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이며,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엔

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진행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심의를 거쳐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농협은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을 제공한다. 진도군에서는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 기준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고향사랑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HD현대삼호 ‘사랑의 야구 관람’

목포공생원 보육아동 등 17명 초청...광주 챔피언 KIA전 관람



HD현대삼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보육시설 아동들을 야구장에 초청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6차전에 지역 보육시설인 목포공생원 보육아동 14명과 인솔교사 3명 등 17명을 초청해 경기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사진> HD현대삼호는 이날 참가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카이박스석을 마련했으며 교통편과 식사 및 간식 등 편의를 제공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이 맘껏 웃고 뛰놀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국악인 등용문 ‘숲쟁이 전국국악경연’ 연다

영광군, 24~25일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21일까지 참가 신청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보존회가 오는 24일부터 25까지 이틀간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실력 있는 국악인들의 최고 등용문인 제22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인 법성포단오제와 함께 펼쳐지는 국악경연대회는 전국의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전국 최고의 행사로 알려져 있다.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오래전 풍요로웠던 법성포에 전국의 예술인이 모여서 경쟁하던 풍류 재현과 전통을 계승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와 실력 있는 인재 발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신청은 21일 오후 6시까지 (사)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서는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